

천주교 세종로성당

원죄없으신성모성심 성모순례지

03169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9
(사무실:733.1471/팩스:732.3354)



나거나 들거나 주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시편 121,8)



세종로성당 유튜브
<http://www.sejonglo.org>

주 일 미 사	오전 6:00, 9:00(중·고등), 10:30(교중), 12:00, 오후 6:00(청년)	평 일	월~토 오전 6:00	주 임 : 박동균 도나도 신부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	오후 3:30(초등), 오후 6:00	미 사	화~금 오후 7:30	부 주 임 : 전창훈 시몬 신부
예수성심 신심미사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7:30 (미사 후 성체강복)			수녀 원 : 장 마리보나 수녀, 안 마리아야 수녀
성모 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6:00			유치원 : 임 광순이사벨라 수녀 733.1475
				사목회장 : 한근영 루가
				연령회장 : 양을석 바오로 010.8739.3490

● 예비신자 성지순례

- 일시 : 4/14(주일) 오전 9시 출발
- 장소 : 절두산 순교 성지

● 자비의 모후Cu., 여성구역 성지순례

- 일시 : 4/15(월)~17(수)
- 장소 : 제주 용수성지, 성 김대건 신부님 제주 표착 기념관, 대정성지, 정난주 마리아 묘, 황사평 성지, 추자도 황경한의 묘 외

● 초등부 주일학교 기쁨잔치

- 이날은 주님께서 만드신 날, 우리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시편118,24)
- 일시, 장소 : 4/27(토) 오전 10시, 소강당

●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묵주기도 10억단 바치기 운동'

2027년 여름에 개최될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위해 묵주기도를 봉헌하시고, 사무실에 준비된 봉헌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 성가대 모집

- 청년미사에 전례 봉사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 성가대 : 김효빈 로젤리나 010-7664-9996

● 성모회 물품 판매

- 청국장가루 1kg : 3만원 (성필립보 생태마을)
- ※ 판매수익은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 모임 안내

단 체	일 시	장 소
신자들의 도움 Cu.	4/14(주일) 12:00	신문로교육관
울프레아	4/27(토) 19:00	소강당
남성구역	4/28(주일) 09:30	소강당

● 유치원, 수녀원, 교육관 공사 협조

- 평일은 공사 관계로 주차하실 수 없습니다.
- 공사현장은 위험하니 항상 안전거리를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님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정성 (4/1~7)

• 부활 제2주일 (936명)	5,491,200원
• 교무금 (86세대)	11,475,000원
• 감사헌금	1,500,000원
고금관 100,000 마유훈 100,000 익명 100,000	
우현화 1,000,000 재속프란치스코회 100,000	
김형권 100,000	
• 건축헌금	490,000원
김경환 10,000 익명 20,000 김민준 100,000	
김기엽 50,000 익명 10,000 익명 150,000	
김정미 50,000 전준희 50,000 이영복 50,000	
• 성소후원금 (9세대)	395,000원
• 총 합 계	19,351,200원

* '변정미', '구본영'으로 송금하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금 납부 계좌 :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은행 124-04-112086

※ 건축헌금 납부 계좌 : 천주교 서울대교구

하나은행 272-910032-68304

* 자동이체나 인터넷뱅킹시 책정자 이름, 세레명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영수증은 납부자의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방문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사9,5)

우리는 구원자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곧 바로 평화의 기쁨을 안겨 주셨다는 사실도 알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수난과 죽음을 앞두고도 구원의 특별한 언약으로 불멸의 영광을 인사말에 넣으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요한14,27) 그분께서 태어나셨을 때 나타난 천사들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며 목자들에게 이 은총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자께서 몸을 입고 오시는, 하느님의 뜻에 따른 그 계획 자체가 세상의 화해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이루시고자 그분께서 몸을 입고 오시어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 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죄를 지어 하느님의 진노를 산 우리가 당신의 화해 행위에 힘입어 다시 하느님의 평화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언자가 그분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사9,5)이라는 이름을 드린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바오로 사도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어, 멀리 있던 여러분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시고 가까이 있던 이들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 양쪽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에페2,17-18)

구운 생선 한 토막

순교자들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제자들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이 가지지 않았습니 다. 눈으로 그분을 보고 손으로 만졌지만 그래도 믿어지지 않았습니 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엄청난 은총을 받았습니 까? 손으로 만지지도 눈으로 보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너무 기쁜 나머지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들은 자기네한테 있는 것, 곧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습니다. 구운 물고기는 불로 입증된 믿음, 곧 순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한 토막일까요?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1코린13,3) 순교자의 온전한 몸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이는 사랑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떤 이는 교만 때문에 고난당합니다. 교만 토막을 치우고 사랑 토막을 내어 놓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음식입니다. 그리스도께 그분의 몫을 드리십시오. 그리스도는 사랑 때문에 고난당하는 순교자들을 사랑하십니다.(아우구스티누스)

나누이지 않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주님의 부활은 진실로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 누구도 아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그분입니다. 한동안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머물며 이야기를 나누시고 음식을 잡수시고 여전히 의심하는 이들에게 당신 몸을 찬찬히 만져 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시고자 그분은 문 닫힌 방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 숨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지성의 빛을 주신 다음, 성경의 비밀을 열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옆구리 상처와 손발의 못 자국 등 수난의 흔적을 모두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드시피 살과 뼈가 있다.” 그분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은 당신 안에 신성과 인성이 나뉘지 않고 함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은 말씀이시자 육신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대 레오)